

소규모 종단 사이버 세계 '눈길끄네'

미륵·총지·총화중, 홈페이지 홍보 활성화

"우리 종단이 사이버세계에 그대로 있네!"
현실 속에서 종단간의 크고 작은 우열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런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한결 수월하다.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중소규모 종단 홈페이지가 종단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중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종단 중 조계·태고·천태·진각종 등 4대 종단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곳은 관음종 보문종 법륜종 등 13곳. 이 중 미륵종 총화중 종지종 등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교에서 4대 종단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름뿐인 홈페이지로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시정도 요구된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 홈페이지는 개인법회 등 사찰행사와 임시종회 등 종단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종단 홍보창구



왼쪽부터 총화중 종지종 미륵종의 홈페이지.

역할을 한다.

행사결과도 속보형식으로 게재하는 등 홈페이지가 '제2의 총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판까지 얻고 있다. 종단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스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중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일대일 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행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홈페이지 활용이 늘면서 종단행사 참가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언론 홍보강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륵종은 올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신생종단이지만 사이버포교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단을 훨씬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화중(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불교와 종현종법, 소의경전, 종단사 등 종단현황과 산하사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본 메뉴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 자료실, 인터넷 사찰기행 등 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 홈페이지는 '사이버 통리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총지종은 그동안 자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후 홈페이지에 대한 종단행사 홍보 및 진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총지종 홈페이지는 종단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군소종단들에게 사이버포교 활성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대부분 종단들은 전산화 마인드 부재에 따른 인력과 재원부족이란 공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리인력 부재로 몇 년째 똑같은 상태로 방치되는 홈페이지, 광고성 혹은 음란 게시물이 그대로 걸려있는 게시판, 자주 다운돼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등은 시정해야 할 문제다.

또한 사찰 홈페이지나 종단 산하단체 홈페이지가 그대로 종단 홈페이지로 이용되는 것은 종단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종단의 도메인들을 미리 선점해버려 홈페이지 오픈에 어려움을 겪는 종단도 적지 않다.

강유신 기자



8월 21일 단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대구대회. 우승팀인 칠곡 삼성사 배구팀의 경기모습.

"천태종 청년불자 하나된 날"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 2만여명 참가 성황

"핑! 팽! 팽! 와아~"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 이견표 단양군수, 신장용 한국중고 배구 연맹 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들의 시구와 함께 2만여 불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폭죽소리로 배구대회가 시작됐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남정락) 주최로 열린 제32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8월 21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것이다. 오전 8시 30분 정중 도용 스님이 임장하고 곧바로 지난해 우승팀 강릉 삼계사가 우승기를 반납하자 중정 도용 스님은 우승기를 한번 흔드는 것으로 대회의 증명을 알렸다.

46개팀 선수단 입장에서 이어 열린 개회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며 "이 배구대회는 우리를 수행의 결정체를 오롯이 담을 그릇을 평소 잘 관리하

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운동장 곳곳에서 양보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날 경기는 전국 46개 사찰에서 참가해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릴레이, 족구 등 5개 종목으로 나누어 운동장 곳곳에서 진행됐다.

불꽃튀는 응원전도 펼쳐졌다. 서울 관문사, 춘천 삼운사, 울산 정광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인천 황문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분당 대광사 등 2만여 명의 신도들은 응원을 통해 소속사찰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날 배구대회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전남 벌교제일고 배구팀을 대표로 내세운 칠곡 삼성사가 우승했다. 삼성사와의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서울 삼통사인천 인하사대부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여 죽구경기와 줄다리기에서는 각각 칠곡 삼성사와 울산 정광사가 우승, 마산 삼학사와 삼척 삼산사가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줄넘기와 릴레이 경기에서는 서울 삼통사와 구미 금광사가 각각 우승, 춘천 삼운사와 부산 삼광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점심공양 10분 완성, 응원상 2연패 달성'을 목표로 내건 부산 삼광사는 다양한 카드섹션과 무용으로 응원상을 수상했다.

오후 5시경 배구대회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자 진팀은 이진팀을 격려해주고, 이진팀은 진팀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펼쳐졌다. 승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통해 선수들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배구대회 개최의 의미가 있는 만큼 참가 불자들이 모두가 우승하는 것으로 끝났다.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32년 동안 한결같이 진행되어온 힘이 거기에 있었다.

단양=김원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개원 직지사서, 29기 179명 입교

조계종은 8월 21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 제29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이번 하반기 행자교육원에는 외국인 행자 7명을 포함, 남행자 91명, 여행자 88명 등 총 179명의 행자가 입교했다.

이들은 9월 12일까지 3주간 직지사 만덕전과 설법전에서 사미·사미니율의, 예경의식, 작법, 부처님 생애, 조계종사, 기본습의, 위의문, 초발심사경문 등 출가수행자의 기초를 이수한다.

참가자들은 9월 11일 시행되는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사미·사미니계를 수지 할 수 있다.

조용수 기자

태고종 합동특도수계산림 소양시험 242명 응시

태고종은 8월 23일 제29기 합동특도수계산림 참가신청 행자 287명 가운데 동방불교대에 재학생 26명과 서류심사 탈락자 19명 등 45명을 제외한 242명을 대상으로 소양시험을 실시했다.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실시된 소양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과 면접, 신체검사로 나뉘어 치러졌다.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들은 9월 21일부터 4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실시되는 제29기 합동특도수계산림에 참가해야 한다. 한편 올해 287명의 수계산림 지원 행자 수는 지난해(283명 지원, 264 승적 취득)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학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준은 예년에 비해



8월 23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행자소양시험 장면

향상됐으며 연령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태고종 총무원은 분석했다.

소양시험을 통과한 268명의 연령대는 10대 5명, 20대 19명, 30대 69명, 40대 126명, 50대 49명이며 남행자 189명, 여행자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는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원자의 수준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수계산림을 총괄하고 있는 교무부장 백운 스님은 "지난 3년간 종단에서 추진해온 각종 개혁 불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김원우 기자

법상종 종도 연수교육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8월 24-26일 안성 쌍미특사서에서 100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계 종도 연수교육 및 옹화 수계특별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도 연수교육은 스님 교육시스템 강화하겠다는 올해 총무원 추진사업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유식입문학, 유식삼심승, 금강경 등의 강의를 오형근 교수 등 외부강사진에 의해 진행됐으며, 총무부장

법정 스님, 총회위원장 우성 스님 등도 포교론, 금강경 등을 강의했다. 연수교육이 끝난 후에는 평택 총무원 유가사에서 옹화 수계특도법회가 봉행됐다.

평택=강유신 기자

조계종 군승후보생 교육

조계종 군승특별교구(교구장 임민)는 8월 24-26일 화성 유주사에서 군승 후보생 및 요원 스님 하계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하계교육은 '설법실습'과



'의식집전' 두 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군승후보생 51명, 군승 요원 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하계교육에는 38명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아빠 49재 참회기도

증명법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 입재일 : 양력 2005년 9월 4일(일요일) 오전10시 • 회향일 : 양력 2005년 10월 23일(일요일)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기도 동참으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발원합니다.

엄마, 아빠 참회 기도

아가야!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때 널 버린다는게 죄인지도 몰랐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나를 용서 해 줄수있겠니?

아가여! 영가여!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제 뒤늦게나마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구나.

- 준비물 : 분유(우유), 과일, 사랑, 초코파이 등 (5개에는 관복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앞 오전 8시 출발
 - 도봉산역 1-7호선 오전 8시 출발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앞(포천방향)
 -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태아영가 천도재는 왜 하는지?

■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낙태. 유산 되어버린 태아령을 위해 원결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 복중의 태아가 유산되지 않고 건강하고 원만한 순산을 바라시는 분
-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
- 사업성취 바라시는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태아령은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로 조상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위패를 쓰거나 천도재를 지내지 않는다.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불자님 접수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